

삼남석유화학 PTA 플랜트 안전 위험!

LG화학 플랜트와 근거리 건설 ... 국내 화학기업 환경·안전 불감증 심각

국내 화학기업들의 Responsible Care 활동이나 환경·안전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시행도 과연 정책 수립단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한국 Responsible Care 협의회에는 석유화학기업들이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대부분인 중소 화학기업들은 협회나 조합이 가입해 있을 뿐 적극적인 RC활동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Responsible Care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침들은 매우 다양한데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도 대기업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 화학기업들은 일단 폐기물이 나오면 폐기물 처리절차에 의거해 관련용역기업에 의뢰해야 하고, 관련용역기업은 수거된 폐기물을 적절한 곳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는데 그치고 있다. 구성원들에게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시행돼야 하지만 대부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시간을 할당하거나 교육시간을 쉬는 시간쯤으로 여기고 있을 뿐 환경에 대한 영향을 교육하거나 개선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작업장에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작업능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나 이 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작업장 청결도 유지를 위해 'Green 21세기' 모토를 내세우고 있는 국내 모 중소 화학기업은 작업에 필요한 연장이나 소모품들의 적체장소를 명확하게 설정해 놓아 산업재해가 최소화 됐고 그로인해 일의 능률이 배가되는 경험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이웃하는 플랜트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위험도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 굴지그룹인 삼양사의 자회사 삼남석유화학의 PTA 플랜트가 여수석유화학단지에 이웃해 있는 LG화학 플랜트와의 거리가 너무 짧아 위법행위를 했고 관계당국에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가동을 실시해 여천공단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삼남석유화학은 환경법규 위반사실 소문이 퍼지는 것이 두려워 언론사 로비를 통해 보도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웃지못할 사건도 있었다.

환경정책 담당부서인 환경부와 안전정책 담당부서인 노동부는 범위반에 대해 단호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발의 위험을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라는 어정쩡한 행정으로 마무리해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환경정책이 화학 및 관련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환경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규제와 아울러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Dow Chemical 등 세계적인 다국적 화학기업들의 RC 및 환경·안전 확보활동은 국내 화학기업들과 비교도 되지 않고 있다.

Dow Chemical Korea에 따르면, 2003년 6월부터 화학물질관리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Dow Chemical Korea가 후원하는 환경정책 관련 세미나를 전국 5개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다.

외국 화학기업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환경정책 세미나를 후원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Dow는 자사 생산 제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관련돼 있는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다음세대까지를 생각하는 면에서 후원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0/10>